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년 11월 29일(화) 13:30 배포시
	담당자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정보센터 소장 (044-550-4126, kjh@kdi.re.kr) 구자현 KDI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205, jahyun.koo@kdi.re.kr) 이경애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전문연구원 (044-550-4106, leeka@kdi.re.kr)
	배포일시	2016년 11월 29일(화) 13:3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금융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 현장점검 및 회의 개최

- 일 시: 11월 29일(화) 07:30~09:30
- 장 소: 서울 프레스센터 국화실(19층)

- KDI를 비롯한 「경제혁신 국민점검반」¹⁾은 11월 29일 금융서비스업 육성과제의 일환인 핀테크 활성화 정책의 추진성과와 현황점검 회의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정부는 그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금융서비스 신시장을 개척하고 창조금융 활성화로 금융과 실물의 융합 성장을 도모하고자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음.

1) 각계 민간전문가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로 KDI 원장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공동반장) 등 15명으로 구성

- 국민점검반은 앞서 11월 21일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63 한화 핀테크 센터’를 방문, 한화그룹의 핀테크 랩 운영목적, 현황 및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음.
 - 한화그룹은 사내 금융회사와 보육 핀테크 간 연계 등 상호협력을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한화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핀테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
 - 드림플러스 63은 한화그룹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핀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
- 이날 회의에서 김준경 KDI 원장(국민점검반 공동반장)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혁신이 변수가 아닌 상수인 시대적 상황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혁신활동이 미진한 금융서비스 부문의 혁신과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가 중요하다”라고 강조
 - “이를 위해서는 대형 금융기관과 달리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핀테크 부문에 ‘위험과 혁신’의 균형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와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서비스 제공, 핀테크 활성화의 핵심요소인 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라고 밝힘.
- 국민점검반은 이번 현장점검 및 회의결과를 토대로 핀테크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강구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건의할 계획
- 한편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이번 핀테크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점검을 마지막으로 지난 2014년 2월 이후 3년간 총 14차례에 걸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현장점검을 마무리함.

- 다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추격형 경제(fast follower)에서 선도형 경제(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과제인 만큼 향후에도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